

어르신 맞춤 웃음폭탄 마당놀이 열린다

전주문화재단, 22~23일 한국전통문화전당서 ‘복이팡팡’ 개최

마당놀이 ‘복이팡팡’이 오는 22일과 23일 오후 3시, 한국전통문화전당 2층 공연장에서 관객을 만난다.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에 따르면 ‘복이팡팡’은 복을 기원하는 전통 고사에 풍물, 민요, 마당놀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창작 공연이다. 장수·건강·행운·자손·재물 등 오복(五福)을 주제로 한 이야기 속에서 인물들이 각자의 복을 찾아 나서는 과정을 해학 과 웃음으로 풀어낸다. 삼신할미, 성주신, 우물신 등 마을 수호신들이 등장해 관객과 호흡하며, 배우와 관객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구성도 특징이다. 관객이 직접 소원을 빌어보는 장면이 더해져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따뜻하고 유쾌한 무대를 선사한다. 합굿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대표 김여명)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

사 이경윤)과 공동 주관하는 ‘복이팡팡’은 지역 축제 등에서 찾아가는 공연 형식으로 꾸준히 사랑을 받아 왔다. 어르신들에게 친숙한 전통 정단과 익살스러운 연기, 공감 가는 이야기로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공연은 공연장 버전으로 재구성돼 어르신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유머와 풍물 연회의 흥을 강화했고, 무대 규모·연출·음향 등을 보강해 완성도를 높였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어르신 세대가 웃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공연의 중요한 목표”라며 “앞으로도 세대별 문화 접근성을 높여 누구나 문화예술을 통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합굿마을문화생산지협동조합(063-236-1577)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마당놀이 ‘복이팡팡’ 포스터

‘꿈의 하모니’로 감동 무대 선사

무주군, 20일 제6회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무주군은 오는 20일 오후 6시 30분 무주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제6회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무주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며 (재)쌍백합청소년육성회, 한전KPS, 무주성당이 후원하는 이번 연주회는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차이코프스키의 이탈리아 기상곡(Themes from Capriccio Italian)’, ‘카르멘’, ‘아이디’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연주



될 예정이다. 특히 각 곡의 감상 포인트 해설이 더해져 관객들의 이해와 몰입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주형 무주청소년수련관장은 “무주군 지역 내 9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 60명으로 구성된 단원들이 지난 1년간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는 자리”라며, “선생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함께 성장한 아이들의 실력과 꿈을 응원해달라”고 전했다. 무주군 ‘아란 꿈의 오케스트라’는 무주청소년수련관이 2020년 꿈의 오케스트라 신규 거점기관으로 선정(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되면서 운영(매주 월·목요일, 방과 후 3시간씩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 플루트, 클라리넷, 바순, 트럼펫, 호른, 트롬본, 타악기 지도)하고 있다. 또한 정기연주회 외에도 여름캠프 연주회, 찾아가는 문화공연, 소규모 행사·기관 협력 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여성화요간담회 여성리더들, 사랑의 연탄나르기 봉사 펼쳐



전북여성화요간담회 여성리더 20여 명이 18일 전주연탄은행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여성화요간담회 여성리더 20여 명이 18일 전주연탄은행이 함께하는 사랑의 연탄나르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작된 전북여성화요간담회는 도내 여성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모임으로, 지역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여성 리더십을 확산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날 봉사활동은 2025년 연중 추진된 ‘하나 바다장터’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과 운영위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총 115만 500원의 성금을 전주연탄은행에 전달했다. 기부된 성금은 약 1,200여장의 연탄으로 환산돼 전주시 덕진동의 난방취약계층 가구에 지원됐다. /장은성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2부 ‘굿패와 무당’ (15)

두 영혼에게 무슨 사연이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두 영혼한테 무슨 사연이 있어요?”

강병도와 박규환이 저만치 앞서가고 네 사람이 뒤처졌을 때, 명희가 연기택에게 물었다.

“처녀가 먼저 물에 빠져 죽고, 총각이 그 뒤를 따랐다고 하는구나.”

총각과 처녀는 같은 마을에 살았다. 어려서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나이가 차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몰래몰래 방앗간이나 저수지 숲에서 만나곤 했다는 것이다.

총각 아버지는 총각이 어렸을 때 이미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오는 이웃동네 친구의 딸과 결혼시키기로 약속을 해놓았다.

총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총각에게 아버지 친구 딸과의 결혼을 말하자, 총각은 같은 동네에 사모하는 처녀가 따로 있다고 말했다.

총각이 아버지 친구 딸과의 결혼을 완강히 거절하자 총각의 부모는 일단 총각이 사귀는 처녀가 누구인지 알아봤다.

총각이 사귀는 처녀는 총각의 선대들이 묻힌 선산을 지키는 묘지기의 딸이었다. 아무리 반상이 무너진 지 오래라고 해도 산지기 딸과 결혼을 시키는 것은 무리였다.

총각의 가족만 달랑 외톨이로 떨어져 살면 그냥 눈 딱 감고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변에 보는 눈이 한둘이 아니었다.

선산을 둔 집성촌에 살다보니 동네사람 모두가 일가친척이나 다름없어 그들의 눈과 말들을 부모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다.

‘도망가서 살면 되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면 되잖아요.’

총각은 울먹이며 절절하게 애원했다. 총각의 부모도 차라리 총각의 말대로 그렇게라도 해주면 어떻까 싶었다. 총각의 부모는 산지기인 처녀의 부모를 만났다.

그러나 오히려 처녀의 부모가 총각과의 혼인을 모질게 반대하고 나섰고, 딸을 골방에 가둬두는 것이다.

처녀의 부모만 찬성하면 총각 말대로 어디 멀리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주려 했지만 처녀의 부모가 생수를 들고 반대하는 바람에 어찌해 볼 수 없었다.

또 어떻게 설득 당했는지 총각이 처녀를 만나려고 하면 일부러 처녀가 총각을 피했고, 억지로 만나면 서로 만나지 말자고 처



녀가 총각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총각은 처녀와의 인연이 여기까지구나 싶어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친구의 딸과 혼인을 하기로 마음먹고 혼인 날짜를 잡고 약혼식까지 치렀다.

그런데 약혼식이 있던 날, 처녀가 총각과 밀애를 즐겼던 구암저수지 상수리나무에 목을 매버린 것이었다.

총각은 충격에 정신을 놓아버렸고 며칠 뒤에 저수지에 몸을 던져버렸다. 비가 오던 날 억겁으로 숲에 취해 비를거리며 저수지 주변을 맴돌던 총각을 봤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며칠 뒤에 총각의 몸은 저수지에서 떠올랐던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처녀가 총각을 데려간 것이라고 말들을 했다.

“원래 혼인국은 집안에 누군가 아프고 우리 담팔개자 점을 봐서 원인이 죽은 처녀와 총각이라는 걸 밝혀내면 하는 것이 관례인데, 이번 경우는 그런 것 없이 먼저 총각 부모가 나서서 해주는 것이라는 구나.”

마을에 도착하여 굿을 준비하는데 약간의 협의가 필요했다.

“아직 혼을 방죽에서 건지지 않았단 말이요?”

호수에 빠져 죽은 총각의 넋을 건져내는 굿을 한 뒤에 영혼 혼인굿을 진행해야 하는데 넋건지기 굿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혼령도 없는데 어떻게 혼인식을 한단 말이요. 넋을 건져낸 후에 혼인을 하든 해야지요. 처녀는 씻김굿을 했습니까?”

처녀의 부모도 송구스런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난감하기 짝이 없었다. 처녀 총각의 부모와 신동택 내외, 연기택 내외는 한참 숙의를 거듭했다.

하루를 예정했던 굿을 이틀로 늘리고 먼저 넋건지기과 씻김을 한 뒤에 혼인굿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모든 절차를 다 갖추는 없고 약식으로 넋건지기과 씻김을 한 뒤에 다음날 혼인식을 거행하기로 정했다.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